

■ 서평 ■

Arlene Davilla, *Latino Spin: Public Image and the Whitewashing of Race*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8), 211pp.

김연진(단국대학교)

오늘날 미국에서 그 인구가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소수 인종 집단이자 유럽계 백인 지배적 사회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이들을 지목하자면 의심할 바 없이 라티노(Latino) 집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인구조사국은 2010년 미국의 라티노 인구가 4천 만 명에 이르며 전미 인구의 약 15퍼센트를 차지하는 미국 최대의 소수인종 집단임을 밝혔다. 또한 2050년이면 백인은 더 이상 다수 집단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미국의 인종·민족적 구성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요소이며 미국의 국가 정체성, 언어, 문화, 가치관 등 전 방위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라티노의 급증으로 인한 미국 전반의 변화에 직면하여 한 편에서는 라티노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미국의 위기(crisis in America)”에 대한 경고를 거듭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라티노들도 과거의 이민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에 동화를 거치고 있다며 라티노의 “임박한 위협(impending threat)”론을 반박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한 편에서는 ‘불법 이민자 집단’ 이자 ‘범죄율 높은’ 라티노,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라티노라는 이미지가 널리 유통되고 있는가 하면, ‘애국적’이고, ‘가족 지향적’이면서 ‘근면한’ ‘모범적 소수 민족(model minority)’이자 ‘모범적 소비자(model consumer)’ 라티노라는 상호 대비되는 이미지도 함께 유통되고 있다. 이렇듯 상호 대조적인 시각과 이미지들이 거듭 공론화되고 널리 유통되면서 미국의 라티노 및 미국 자체의 미래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알린 다비아(Arlene Davilla)는 *Latino Spin: Public Image and the Whitewashing of Race* 라는 저작

을 통해 한 쪽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이러한 논란 뒤에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다.

사실상 라티노를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미국 사회에서 라티노의 위치와 전망에 대한 전국적 논쟁은 ‘히스패닉(Hispanics)’ 또는 ‘라티노(Latinos)’라는 범주가 널리 사용되면서 수십 년 간 반복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다비야에 따르면, 라티노에 대한 표상이 더욱 “상품성 있고(marketable),” “무해하며(sanitized),”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라티노가 가장 정치적으로(정당에게) 또 경제적으로도(시장에) 보상을 하는 집단이라는 것 또는 라티노가 점차 계급과 “새로운 주류(new mainstream)”의 초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담론과 표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라티노에 대한 표상과 담론은 정치가들, 시장(market), 그리고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쪽 모두의 저술가들에 의해, 그리고 “스핀(spin)”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서 스핀이라는 용어는 여론 조사, 연구, 저술의 내용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의 선택적 출판, 유통과 배치 등에 의해 발생하는 “공공 담론의 주문 생산(customized manufacture of public discourse)”으로 규정된다.

다비야는 “마케팅 가치가 있는(marketable)” 담론을 살펴보는데, 그것들이 라티노에 대한 지배적 담론이 아님을 분명히 제시한다. 지배적 담론이라면 일반적으로 라티노를 ‘침입자’로, 미국의 인종과 문화적 구성을 가장 위협하는 ‘갈색 물결(brown tide)’로 간주하는 것으로, 라디오 토크쇼만 잠시 듣더라도 이러한 시각이 지속적으로 우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비야는 그가 살펴보는 담론과 표상이 일반 대중적 수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제도적 공간에서 우선적으로 번성하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그럼에도 다비야는 더욱 마케팅 가치가 있는 담론과 표상(representation)에 집중한다.

다비야는 최근의 라티노 관련 내러티브의 경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오늘날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라티노는 미국의 소중한 가치들이지만 급속하게 사라져가고 있는 보수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잊혀져 가고 있는 미국”을 되돌려줄 수 있다. 보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라티노가 “신 주류(The New Mainstream)”가 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공화당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라티노 음악과 대중문화의 점증하는 영향력이 “라티노 시대의 도래”(coming age of Latino)를 알리는 분명한 사인이다. 셋째, 라티노는 가장 활발하게 취업하여 경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공공복지 의존도를 갖고, 가장 견고한 가족 구조를 유지하며, 가장 낮은 비율의 심장마비를 경험할 뿐 아니라, 가장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는, 그리고 비 히스패닉 백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비교하여 5년은 더 긴 기대수명을 갖는다. 그러므로 라티노는 “중간 계급 미국인들 보다 더욱 더 미국의 중간 계급 같은”이들이다. 즉, 라티노는 자신들의 문화가 건강 악화에 완충작용을 하는 단 하나의 집단이다. 넷째, 라티노의 문화는 심지어 감소하는 폭력과 범죄율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히스패닉 이민 지역(ethnic enclave)에 사는 것은 비 히스패닉 백인과 흑인도 보호해줄 수 있다. 다섯째, 라티노가 미국의 인종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라티노의 거의 절반 정도가 자신들의 지난 인구조사에서 백인으로 확인하였던 것이 이들의 주류화의 신호이다. 43퍼센트가 전통적 인종적 범주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인종적 정체성으로 “또 다른 인종(some other race)”을 택했다는 것은 이들이 인종의 의미 그 자체를 변혁하는 핵심에 있다는 증거이다. 간략히 얘기하자면, 라티노가 앵글로 프로테스탄트 가치관- 기업가정신, 교육, 성공 등으로 특징되는- 을 공유하는 의심할 바 없는 미국인임을 보여주는 잘 준비된 또 다른 소수 민족 (ethnic minority) 집단이라는 것이다.

물론 다비야가 라티노에 대한 이러한 주장들을 완전히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특정의 해석이 어떻게 그리고 왜 선택적 지배력을 갖는가에 관심을 두고, 자신이 스피너로 언급한 바에 대하여 1, 2부를 통해 집중적으로 논한다. 다비야는 공공 담론과 정당들, 라티노 싱크탱크, 박물관, 그리고 대학의 라티노 프로그램 내에서 라티노들(Latinos)이 단일 집단으로 동질화 되어버렸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공간들을 ‘라티니다드(Latinidad)’의 생산, 유통, 그리고 소비와 점차 더 많은 관련성을 갖는 오늘날의 인종 정치와 배제와 연결시킨다. 이를 위해 1부에서는 2004년 선거 당시의 정치 선전과 같은 전국적 소비를 겨냥한 표상을 살펴본다. 다비야는 정치가, 여론조사가, 마켓 담당자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라티노를 미국에 유익한 이들로 보려는 의도가 어떻게 미 국민과 미국의 인종 위계 내 그들의 위치를 규정했는지 살펴 본다; 1장에서는 싱크 탱크와 공공 정책 연구자들이 라티노 인구 중 오랫동안 두드러지지 않았던 중

간 계급 라티노 인구의 존재를 강조하는 연구 발표가 점증했음에 주목한다. 2장에서는 2004년 선거에서 라티노 유권자의 논의를 지배했던 스핀으로 관심을 돌린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정당, 특히 기록적으로 라티노 표를 획득한 공화당의 어젠다에 삽입되고 라티노 논의에서 주류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즉 라티노를 미국 중간 계급 가치관, 곧 공화당이 표방하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떠오르는 미국의 중간 계급으로 규정한 스핀을 논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라티노 이민의 급증과 함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과 표상의 확산 및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라티노=모범적(최고의) 소비자로 간주하는 보상적 담론을 살펴본다.

2부는 미니 사례연구로, 다비야는 라티노 표상과 관련된 세 가지 공간, 라티노 박물관, 라티노 테마의 도시 계획, 대학 내 라티노 연구(Latino studies)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재의 라티노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을 이끌어내는지를 살펴본다; 4장은 뉴욕 시 이스트 할렘(East Harlem)의 가장 규모가 큰 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싼 지역의 투쟁을 다루며, 미국 도시의 라틴화란 근거가 없음을 드러낸다. 저자는 오히려 이 프로젝트는 라틴화보다는 라티노의 거주박탈과 유색인의 도심으로부터의 축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새로이 인종적, 계급적으로 배타적인 신자유주의 도시로부터 노동과 중간 계급을 제거해버리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경고한다. 5장에서는 급속히 진행되는 사영화(privatization)와 지구화의 시대에 변화하는 사회 정치, 경제적 조건하에서 배리오 박물관(El Museo del Barrio) 등 라티노 기관들이 경험한 전시 방향의 변화에 대한 논란이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6장에서 라티노 연구와 또 다른 소수민족 연구들이 주류화하면서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새로이 종속화 되고 있으며, 단지 다문화 시대의 ‘다양성 관리(diversity management)’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저자인 다비야는 분명히 오늘날의 라티노 담론과 표상에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작동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 글에서 다비야가, 예를 들어 라티노가 근면하다거나 가족 지향적인 “보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스핀을 부정하거나 그에 도전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그러한 특성화 또는 일반화가 오늘날 미국의 라티노에게 진정 발생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눈감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필요를 주장한 것이다.

실상 라티노는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미국의 라티노란 국적, 성, 계급, 인종적 범주를 모두 망라하는 명칭이다. 여기에 또 이민의 시기 및 세대에 관계없이 총칭되어지는 명칭이다. 이민 3세대이며, 영어를 사용하는 도시 전문직 라티노와 바로 이민 온 1세대 비숙련 노동자 라티노를 어떻게 한 범주에서 논할 수 있을까? 이와 마찬가지로 라티노 유권자에 대한 일반화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은 분명하다. 다비야는 라티노 여론 조사의 문제, 유권자 등록을 하고 실제 투표를 한 라티노의 제한적 숫자를 보여 주며, 2004년 선거를 통해 등장한 라티노=공화당이라는 등식이 분명 잘못 되었음을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라티노의 정치적 견해를 ‘보수적 가치’로 축소하고 중속시키는 문제의 일부를 검토하며 공화당이 근간으로 삼는 보수적 가치=라티노의 가치이기에 라티노는 공화당 지향적이며 공화당의 든든한 또 다른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래 라티노가 중간 계급으로 상승 이동하고 있다는 스펀을 알리는 연구와 주장들이 부쩍 늘었고, 캘리포니아 대학교(UCLA)의 데이비드 헤이즈-바우스티타(David Hayes-Baustista)는 많이 알려진 “새로운 캘리포니아(La Nueva California)”에서 “라티노가 중간 계급 미국인들보다 더 미국 중간 계급 같이 행동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다비야는 라티노의 중간 계급화에 대한 논의에 있어 미디어 마케팅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지적한다. 라티노는 마케팅업자들에 의해 중간 계급의 위치를 부여받은 것으로, 자동차에서 기저귀, 음식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애쓰는 마케팅 담당자들이 라티노의 사회 경제적 상황 대비 소비를 높게 평가한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라티노는 고이윤을 낳는 미디어와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장 경제의 적극적 참여자라기 보다는 단순한 수동적 소비자 정도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라티노의 시장성은 그들의 ‘시대의 도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미디어 마케팅의 소산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다비야는 많이 연구되지 않은 라티노 사회 내 중간 계급의 존재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지 않는다. 그러나 왜 라티노 중의 이들 일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미국인들이 중간 계급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가장 불안정하며 채무와 신용 문제에 힘들어진 이

들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그러한지 의문을 표한다. 활력 있고 증가하는 라티노 중간 계급에 대한 무비판적 축하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불확실성을 감추어버리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라티노가 중간 계급으로 상승 이동하고 있다고 제시하는 것은 라티노와 백인 가구간의 소득격차를 무시하는 것이며, 수많은 그 외의 라티노 및 소수 인종들에게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이 이를 수 없는 채로 남아있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자는 라티노 중간 계급 표상과 담론이 백인화 거대 프로젝트의 일부로 사실상 많은 라티노와 그 외 유색인종의 주변화에 기여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백인성의 정치에서, 다비야는 근면성과 가족 지향적 가치 등 이른바 “미국적 가치관”으로 간주되어 온 것들이 “모범적 소수 민족(model minority)”의 가치관을 얘기하는데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들 가치는 미국의 소수 민족 집단들이 자신들도 미국인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되어왔다. 또 이러한 가치를 지닌 어떤 집단들을 미국 국가 이데올로기의 핵심에 있는 개인주의와 능력주의의 이상의 살아있는 증거로 삼아왔다. 하지만 이것은 소수 민족·인종 집단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거리를 두도록 압력을 가해온 과정이다. 그러므로 다비야는 라티노의 가치관에 대한 찬사는 또한 미국 사회 내에서 특히 흑인과의 거리를 확대시키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실상 새로운 표상은 인종, 피부색 불문(color blindness)이라는 어찌 보면 가장 민권 지향적이며 평등주의적인 듯 보이는 수사를 활용하나 실체는 그렇지 못한 신 자유주의(neo liberalism)의 시대에 라티노와 또 다른 소수인종 -특히 흑인- 과의 양극화를 견고히 하는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라티노 사이에서도 계급 및 피부색에 따른 차별화를 가져오는 등, 백인성(whiteness)을 증진한다. 분명 저자는 오늘날의 라티노 논쟁은 인종적 고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라티노가 미국의 주류에서 성공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라티노가 성공을 하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비야는 “라티노 시대의 도래” 담론은 실재이기 보다는 스펀이라고 생각한다. 더욱 많은 라티노들이 중간 계급의 위치에 합류하고 있다. 하지만, 라티노는 그들이 주류에 합류하고 있고 또 합류하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는 때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의 주변부에 놓여 있다. 이는 그들의 시대가 온다는 말의 조건과 함축된 의미를 알려준다. 이는 미국 사회와 문화에 미친다고 가정된 라티노의 충격과에 대한 지속적이며 가열된 논쟁으로 증거 된다. 이들 논쟁은 결국 라티노가 “온전한 미국인(proper American)”이 아니라는 것, 그들은 주류(백인)사회에 대한 도전을 대변한다는 것, 그들의 영향은 부정적이고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라티노 중간 계급 담론과 표상의 공공 공간에서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유통도 신 자유주의 시대의 미국의 필요에 부응하고, 미국의 인종 정치의 유지를 목표로 한 또 다른 차원의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오늘날의 라티노 관련 논쟁에 대해 진정으로 다비야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아닐까?

정치학자인 알린 다비야의 이 저작은 2010년 저술상을 받았을 만큼 발군의 라티노 연구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역사가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 아쉬운 점도 있다. 다비야는 라티노를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비판하지만, 그 자신도 라티노의 다양성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라티노의 중간 계급화에 대하여 논의를 제시하고 비판하지만, 그 자신 이 바라보는 라티노 중간 계급의 등장에 대한 구체적 논의 자체는 매우 미흡하다. 라티노 가치관=전통적 미국의 가치관이라는 등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지만, 가치관 그 자체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백인성과 인종 정치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지만, 저자의 논의 자체도 그리 심도 깊은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저자가 제시한 사례들도 지역적으로 동부(라티노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서부 대신)에만 치우쳐서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것도 라티노 관련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비교적 짧은 글 속에서 지나치게 많은 논의가 전개되어 저자의 논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그리 수월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물론 이 부분은 평자의 능력 부족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라티노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주로 라티노 이민 그 자체와 이민자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이 연구가 미국 사회, 특히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라티노에 대한 담론과 표상을 중심으로 색다른 접근을 시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담론과 표상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라는 측면을 연구의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라티노 역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극을 주는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